



본 자료는 안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ansancci.korcham.net) > 새소식 > 보도자료에 수록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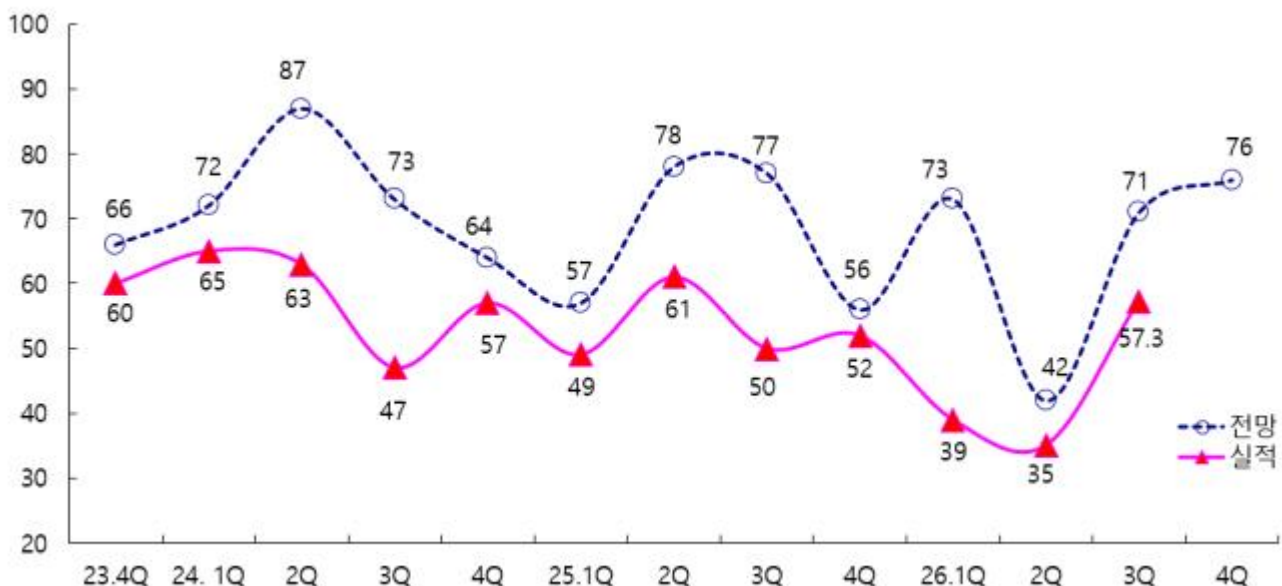
안산 제조기업 26년 4분기 경기전망지수 '75.3', 경기 회복 흐름 불구, 여전히 기준치(100)에는 못 미쳐

- 전국(85.9)·경기(91.4) 대비 낮은 수준...안산 제조업 체감경기 회복세 '주춤'
- 전기전자 업종 유일하게 호조(106) 전망...제조업종별 경기 전망 온도차 뚜렷

안산상공회의소가 안산지역 소재 제조기업 89개사를 대상으로 2026년 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75.3'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 분기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나, 전국 종합 전망지수(85.9)와 경기도 종합 전망지수(91.4)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3개년 안산지역 기업경기전망지수를 살펴본 결과, 하락과 반등을 반복하며 경기 전망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 2026년도 2/4분기 이후 기업경기전망지수가 점차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있어,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은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3개년 안산지역 기업경기전망지수(종합)



※ BSI가 100 이하는 부정적, 100 이상이면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임.

세부 업종별로는 전기전자(106) 업종은 '호조'를 전망했으며, 운송장비(100) 업종을 '보합'을 전망했다. 석유화학(82), 목재종이(80), 철강금속(75) 업종은 '부진'을 전망했으며, 기계설비(65), 섬유 의복(40), 비금속(40), 기타(33) 업종은 '침체'를 전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실적(영업이익) 연간 목표 달성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66.3%가 '미달'[일부미달(10% 이내) 56.2%, 크게 미달 10.1%]을 예상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어, '목표 수준 달성(23.6%)', '목표 달성(10.1%)'[크게 초과 달성 5.6%, 일부 초과 달성(10% 이내) 4.5%]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올해 목표치 달성의 가장 큰 긍정 요인으로는 '판매·수주 여건 개선(50.6%)'이 꼽힌 반면,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원자재·에너지 등 생산비용 상승(52.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안산 제조기업이 안정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수익성 확보를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원·달러 환율은 '평균 1,343원/달러'로 집계됐다. 한편, 수입의존도는 '50%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19.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10% 이상 20% 미만(18.0%)', '10% 미만(15.7%)', '20% 이상 30% 미만(13.5%)', '30% 이상 40% 미만(13.5%)', '전량 국내 조달(11.2%)', '40% 이상 50% 미만(9.0%)'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 추진 과제로는 '지역 소재 기업 세제 혜택 강화'가 4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지역 소재 기업 대상 규제 완화(21.3%)', '지역 투자보조금·정책 금융 확대(14.6%)', '지역 인력난 해소(9.0%)', '지역 소재 기업 AI 전환 지원(7.9%)', '위기산업·지역 지원 확대(5.6%)' 순으로 응답했다.

※ <붙임> 『2026년 4/4분기 안산지역 기업경기전망지수 조사 보고서』 1부. 끝.